



[금융]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영업망 최적화·ICT기술
중소금융 혁신·증권화
06

[바이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사·환자 존중하는
진료 환경 조성돼야”



“금융은 행복한 삶의 수단… 물질 만능의 어둠 깨고파”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정운영

2013년 금융복지정책연구소 설립
금융윤리 교육하는 금행넷으로 발전

4개분과로 전문가 100여명 소속
금융문화 토크쇼 행사 진행도

국민의 ‘금융행복지수’ 개발하고
윤리기준·행동강령 지표 만들고파

지난 2013년 설립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금행넷)’. 단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운영 의장(48)의 가치관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운영 의장은 문화, 예술, 금융을 아우르는 4시간짜리 토크쇼를 기획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금융교육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그다. 특히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슈가 될 때 그의 역할을 더욱 두드러졌다. 이미 금융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정 의장은 대학에서 소비자 경제학을 전공하고, 개인재무영역(personal finance)과 관련된 분야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오랜 시간 지내왔다.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금행넷을 설립한 계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에서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끝으로 하라’는 문구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공부한 것을 세상에 이롭게 써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길게 고민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2013년 금융과 복지를 합쳐 ‘금융복지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소’만으로는 늘 갈증이 있었다고. 금융에 복지라는 개념을 더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넘어 발로 뛰는 일이 절실히 있다고 생각했다.

정 의장은 “금융의 원래 기능은 모자람과 남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는 ‘금융윤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금융복지정책연구소는 ‘금행넷’으로 발전했다.

현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 4개분과로 나눠져 있다. 금융과 행복 문화 분과, 금융 교육 분과, 금융정책 분과, 금융 상담 분과다. 금융, 경제, 교육, 심리, 문화, 예술 등 각각의 전문가들이 각 분과에 소속돼 융합 플랫폼을 형성해 일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저희 금행넷에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금행넷의 설립 목적, 신념, 명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모이셨죠. 현재 전문가만 100여명 정도가 있다”고 말



2018년 9월 충청북도 충주시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열린 ‘금융문화 토크쇼’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사회 속 여성으로서, 한 법인의 의장으로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답은 진심과 소통이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고 나서 의 결과에 대해선 상처받지 않아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보고 다닌다. 이런 과정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고 했다.

그의 ‘체력’ 역시 금행넷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힘이다.

그는 “빠르진 않아도 꾸준하게 일을 하는 ‘지구력’이 저의 장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개인의 역량은 체력과 건강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체력이 부족하다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의 새벽을 열어나갈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이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자신의 역량을 낮추어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역량은 40대 이후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자기의 위치를 미리 가늠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앞으로도 금행넷은 ‘지속 가능한 성장’ 이란 패러다임 아래 정부와 기업, 금융소비자 간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소소하면서도 원대한 꿈을 위해 그의 시간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18년 9월 충청북도 충주시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열린 ‘금융문화 토크쇼’에서 청중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있다.



2018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했다.

금행넷의 ‘융합플랫폼’을 가장 잘 실현한 행사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열린 ‘금융문화 토크쇼’다. 금행넷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소비, 투자, 심리, 교육, 문화, 예술, 행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200여명의 청중들과 편한 대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 의장은 이날 행사를 “감격스러웠다”고 표현한다. 200명이 넘는 관객을 4시간 동안 몰입하게 만든 ‘성공적’ 행사였다.

정 의장은 “제1회 금융문화 토크쇼에서는 소비를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우리사회, 다함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했다.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힘들어 하지만 그걸 같이 공감하고 한 공간에서 힐링하면서 아주 사소하지만

왜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실천해 가야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의 금융 문화 토크쇼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있는 토크쇼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으며 행복했다. 심지어 어느 중년여성분은 화장실도 안 가고 4시간을 보내는 건 기적이라고 웃었다”고 했다.

올해는 5, 6개 거점 도시에서 ‘금융문화 토크쇼’가 열릴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의미를 전하고, 지금 을 모으는 일이라고.

올해 그가 세운 계획은 말로 만들어도 빼듯하다. 국민들의 ‘금융행복지수’를 개발하고 금융인의 ‘금융윤리기준과 행동강령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일이다. 또 금융권의 전문윤리자격증(가칭)을 수여하고 노력하는 일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과 행복’이라는 낯선 단어의 조합을 세상에 선보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문화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금융 소비자도 금융권도 변할

